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일찍 찾아온 여름! 닭고기 소비에 긍정적 신호

월드컵 특수, 치맥축제, 북경기 등으로 이어지는 호기 잘 이용해야...

일찍 찾아온 더위와 월드컵 특수

때아닌 5월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더위가 예상외로 일찍 찾아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날씨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6월에는 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다고 예보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다는 것은 닭고기 소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닭고기업계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육계를 사육하는 양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반가워할 일이 아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장마기간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생산성에 큰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 13일부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월드컵 열풍이 7월 3일까지 펼쳐지면서 닭고기 업계는 특수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월드컵에 이어 여름이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삼복(7월 18일(초복), 7월 28일(중복), 8월 7일(말복))이 월드컵 열기로 달궈진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초복을 전후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대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어 9월 19일~10월 4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고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펼쳐지면서 여름과 가을까지

닭고기 소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AI발생 이후 육계 경기가 최악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월드컵에 이은 북경기가 닭고기 시장의 '가뭄의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

닭고기 자조금 활성화 기해야

최근 닭고기 가격은 kg당 1,300원 병아리 가격은 320원으로 AI발생 이후 낮게 형성되면서 지속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원종계 농장들과의 생산감축에 대한 논의도 연 16만 2천수로 쿼터를 묶자는 원론적인 논의만 있었을 뿐 종계감축 등 생산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에는 소원한 상태이다.

AI발생 이후 침체일로에 있는 닭고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닭고기 자조금 활동이 지지 부진한 것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닭고기 자조금은 정부의 예산 승인은 커녕 사업계획조차 제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해 어렵게 구성된 닭고기 자조금 대의원도 참여단체들의 지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모처럼 하나로 뭉쳤던 닭고기업계가 다시 와해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습책으로 각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전방안을 조율하고 나섰지

만 6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조금단체들이 자조금 동참의 뜻을 밝힌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AI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확정 및 각종 활동을 위해 관리위원장 선출은 물론 각 단체들간의 화합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의 보양식 삼계탕 미국진출

월드컵 특수가 지나면 삼복(三伏)이 찾아온다. 삼복은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행의 원리로 열이 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보양하였다. 그중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삼계탕이다. 따라서 삼복을 낀 여름철에는 닭수요가 연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물론 닭고기를 도계, 유통, 판매하는 계열사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최대의 성수기라 볼 수 있다.

삼계탕과 관련해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삼계탕이 미국땅을 밟게된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미국에서는 삼계탕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코니쉬로 선정하여 삼계탕을 흉내냈지만 우리나라 삼계탕 맛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코니쉬는 크기는 작지만 살이 쉽게 분리

되어 삼계탕의 맛을 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삼계탕을 주도하는 백세미에 이어 웅추(산란계 수평아리)도 삼계탕시장을 상당수 장악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우리나라 종자를 통해 삼계탕용 닭을 개발하여 보급단계에 있었지만 AI로 매몰 처분되는 바람에 다시 복원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국내 삼계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세미는 종계수컷에 산란계를 교잡해 만들어낸 우리나라만의 특이적인 상품이다. 대중화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문제는 생산과정에서 종계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주고 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닭고기를 생산하거나 새로운 대체품종을 만들어 모처럼 미국 수출길에 오른 우리나라 전통의 삼계탕을 뽕뽕하게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월드컵 특수와 닭고기 시즌인 북철에만 닭소비를 기대하지 말고 연중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표류하고 있는 닭고기 자조금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길 바라며 다양한 자조금 사업을 통해 닭고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사)대한양계협회 홍보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



‘다그로월드’
조관일 초대 이사장

‘다그로월드’ 조관일 초대 이사장은 춘천 토박이다. 춘천에서 나서 춘천고와 강원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강원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조관일 이사장은 처음 직장생활을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며 시작했다. 교편을 내려놓은 후 1974년 농협에 입사하였고 동기생 중 최초로 농협중앙회 상무에 올랐다.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낸 그는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석탄공사를 단 1년 4개월 만에 25억 원의 흑자(금융비용제외)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경영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런 조관일 이사장이 이번 ‘다그로월드’ 프로젝트에 이사장으로 발탁된 데에는 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남다른 경영감각,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조관일 이사장은 10여 년 전, 농협 강원지역본부장으로 지낼 때, 춘천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닭갈비를 뛰어넘어 ‘닭도시’가 돼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그런 내용의 칼럼도 쓰며 춘천의 앞날을 걱정하던 조관일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일 춘천의 미래를 걱정하던 춘천의 인사들과 만나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람들은 닭협동조합을 만들고 춘천시에 닭과 관련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육성하는 ‘다그로월드’를 창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07년 춘천닭갈비축제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조관일 이사장의 남다른 춘천사랑과 ‘다그로월드’의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

닭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춘천을 세계적 닭도시로 성장시킬 것

‘다그로월드’는 지자체의 지원 및 시민 참여를 위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키로 춘천시가 세계적 닭도시로 성장하면 닭요리 자체의 수요 상승으로 이어질 것

■ ‘다그로월드’가 협동조합으로 창립된 계기는 무엇인 지요?

‘다그로월드’는 비영리의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최근에 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한다면 주식회사 형태가 낫겠죠. 그러나 시민의 참여를 전제한다면 협동조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다그로월드’의 각종 추진사업이 닭고기 자체의 소비촉진사업과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요?

사람들은 아직도 ‘다그로월드’가 닭관련 음식조합이거나 또는 닭을 사육하는 양계조합인 줄 압니다. 강조하지만 저희는 닭과 관련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로 사업을 꾸려가는 협동조합입니다. 음식조합을 하게 되면 닭갈비 업소와 경쟁하게 되어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닭과 관련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로 춘천을 세계적인 닭도시로 만들게 되면 자연히 춘천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닭갈비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닭요리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농가는 더 많은 닭을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 한 언론에서 일본의 고지마라는 청바지 도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춘천이 닭 고장으로 되기 위한 강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구라시키(倉敷)시에 있는 작은 마을 고지마(児島)는 청바지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것으로 인구 7만 2,000여 명에 관광객이 5,000명에 불과하던 곳이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며 3년 만에 27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관광객수가 50배 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닭은 청바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청바지는 먹을 수 없지만 닭은 음식이 될 수 있고 게임도 가능하거든요. 장난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3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춘천은 도시의 규모면에서도 적당합니다. 만약 서울이나 인천이 닭 도시를 한다고 해보세요, 도시규모가 너무 커서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50여 년 동안 닭갈비 업소가 노력한 끝에 부지불식 간에 ‘춘천 = 닭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입니다. 도시 경쟁력이자 성장동력입니다. 이것을 잘 살리면 춘천은 세계적인 닭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전국적인 시발생과 춘천닭갈비에 대한 공중파방송의 잘못된 보도, 노로바이러스 문제 등으로 춘천지역의 닭갈비 업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년 1월, 닭갈비와는 관계없이 관광객이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됨으로써 난리를 겪었습니다. 또 AI가 발생했다는 보도만 나와도 춘천은 출렁거립니다. 닭갈비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가슴이 철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해 닭갈비라는 음식산업의 한계를 극복한 다양한 닭관련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그로월드’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춘천이 대표적인 닭도시로 성장한다면, 오히려 춘천을 청정 닭산업의 대표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I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소를 춘천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춘천을 세계적인 닭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닭갈비를 포함한 닭요리 업소에서는 다른 곳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위생에 신경쓰게 될 것입니다.

■ 초대 이사장으로서 ‘다그로월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실 계획인지요?

‘다그로월드’에 대한 보도가 여러 차례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잘 모아 완급과 경중을 따져 차분하게 하나씩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자금이나 조직도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닭도시에 대한 신념을 갖고 도와주느냐이고, 둘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느냐입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춘천이 세계적인 닭도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HOT
ISSUE

0 0 2

2차 FTA 토론회, 생산성 향상 위한 정부 지원책 및 규제완화 필요성 강조

계열화사업의 재검토 통해 농가와 계열사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 마련돼야



육계분야 분임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토론자들

영연방 3국 FTA 대책에 대한 축종별 생산성 향상 및 품질부분 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 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지난 5월 9일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FTA 대책 토론회와 관련하여 정부, 생산자단체, 지자체 간 추가 필요사항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및 (사)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사)한국계육협회 박상연 부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 등 닭고기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와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축종별로 분임토론회를 가진 이번 토론회에서 육계분야 토론회도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육계분야 분임토론회에서 나온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열화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

은 육계산업 분야가 축산업에서 계열화사업이 가장 발달해 있으며 가장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내부적 갈등이 존재하므로, 농가와 계열사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계열화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금 농가와 계열사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고충은 금전적인 문제, 즉 사육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농가의 수당 소득, 계열화사업의 발전규모 등을 조사해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종계장의 시설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닭고기산업에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뒤지는 부분이 종계 분야이므로 종계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병아리가격 하락을 통

해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넷째, 토종종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요구했다. 수출 시에 삼계탕이나 달고기 수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 토종종계에 대한 수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사)한국토종닭협회가 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토종종자를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검역조건을 완화하고 토종종자에 대한 수출지원책을 강구해야 줄 것을 주문했다.

다섯째, 달고기 수출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전했다. 지금까지 달고기 수출은 삼계탕 위주로 한정되어 있으나 닭갈비나 외국인 입맛에 맞는 계열조리식품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함을 밝혔다.

여섯째, 친환경육산 및 HACCP 등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사육부터 가공까지 일원화된 HACCP제도가 갖춰진다면 외산 닭고기제품이 국내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수입육과 국산 닭고기의 차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국산 닭고기의 경우 도축한지 60일이 넘는 닭이 수입되는 것을 볼 때 도축일자 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다면 효과적인 수입육 차단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곱째, 대형닭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국내 농가들은 1.5kg을 키우는 반면, 외국은 2.5kg을 키우며 생산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어 생산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형닭 생산에 앞서 시장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대형닭을 키우는 농가나 계열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야 지속적인 시장개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덟째,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해 사육농가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실현해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지금까지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하다 보니 농장규모가 커지고 과잉생산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적절히 검토해 수급조절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야 할 것임을 밝혔다. 생산성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난방비와 깔짚비 지원 및 LED 조명 보급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홉째, 도계장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에 현재 산업체는 기숙사를 지원받으나 농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기숙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계장 부대시설(주차장, 계류장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육계분임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에서 지난 토론회 당시 논의된 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가 육계산업 전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경연, 총 공급량 증가로 6월 육계 산지가격 1,400~1,600원/kg 전망

월드컵으로 수요 증가하나 총 공급량의 월등한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 하락

6월에는 도계 마릿수 증가 및 냉동 비축물량 증가로 총 공급량 증가세가 높아 6월 육계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400~1,600원/kg이 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6월 도계 마릿수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6.7% 증가한 7,668만 마리로 전망했으며, 5월 11일 기준 닭고기 냉동 비축물량이 전년보다 30.8% 증가한 1,019만 마리로 밝혔다. 반면 6월 닭고기 수

입량은 브라질 닭고기 생산 차질로 전년보다 7.8% 감소한 7,509톤으로 전망했다. 이에 6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도계마릿수와 비축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9,628만 마리로 예상했다.

농경연은 5월 하순 닭고기 수요가 중앙자문회의 결과 전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6월에는 월드컵 경기시간의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나 월드컵 개최로 닭고기 수요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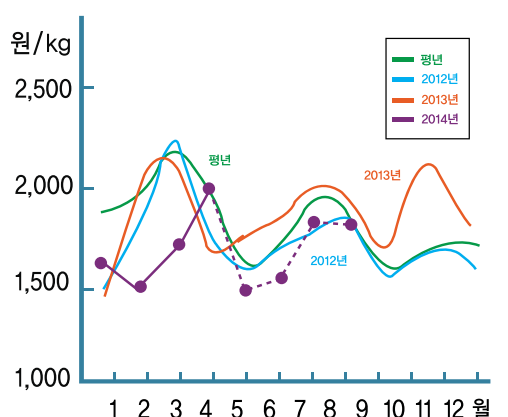
따라서 6월에는 닭고기 수요가 전년보

다 증가하지만 공급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육계 생체 kg당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9~21% 하락한 1,400~1,6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농경연은 7~8월 육계 산지가격도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북수요와 여름 기상조건이 작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보되어 7~8월 닭고기 수요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7~8월 수요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도계 마릿수 증가로 7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4~15% 하락한

1,700~1,900원/kg, 8월 육계 산지가격은 5~16% 하락한 1,700~1,900원/kg으로 전망했다.

육계 산지가격 전망



HOT
ISSUE

0 0 3

(주)하니스, 프랜차이즈 치킨점 '군계일닭' 통해 대형닭 판매에 나선다

곽준욱 대표, 대형닭 통해 수입육 대체와 국내 양계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수입육을 대체할 수 있는 대형닭 프랜차이즈가 탄생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1.5kg 정도의 소형닭이 대세이고, 닭가슴살과 같은 부분육은 수입육으로 대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수입육을 대체하기 위해 (주)하니스는 대형닭을 연구해왔으며, 대형닭을 생산과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대형닭 프랜차이즈 치킨점 '군계일닭'을 열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5일에는 '군계일닭' 직영 1호점(한티역점)에 (사)한국계육협회 박상연 부회장, (사)대한양계협회 김동진 부장, 국립축산과학원 이상진 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이 진행되었다.

(주)하니스 관계자는 '군계일닭' 닭고기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전했다. 먼저, 자체 개발한 친환경 고상식계사를 통해 사육하기 때문에 닭의 항병력이 강하고 위생적이라고 밝혔다. 둘째, '군계일닭'은 닭을 대형닭으로 사육해 쫄깃쫄깃한 맛을 내는 아노신산이나 글루타민산 함량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 병아리와 국내산 사료를 사용하며 국내 농가에서 사육한 100% 국내산 닭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주)하니스는 그 동안 국내 양계산업은 반 세기 동안 1.5kg의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소비자들도 소형닭이 닭고기 시장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암묵적으로 국내 닭고기 시장에서는 소형닭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주)하니스의 곽준욱 대표는 "군계일닭의 생계는 2.2~2.5kg 정도이며, 도계를 할 경우 1.5kg이 나오므로, 주식으로도 충분한 고기량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계일닭이 추구하는 닭고기 시장은 수입닭고기를 대체하고 국내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군계일닭 체인점을 확대해 대형닭고기의 저변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서둘러야 한다

폭염특보뿐 아니라 폭염피해로 인정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어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자연재해(수해, 풍해, 설해 등)와 화재, 질병 등으로 손해를 보면 가입금액 한도 내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이다. 단 정부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AI는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하므로, 손익평가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보상하는 AI보상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 중 폭염특약은 폭염으로 인하여 보험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 약관에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 및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발령전 24시간(1일)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1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 많은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고 폭염특약에도 가입한 농가는 기온이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닭이 폭염피해로 죽은 것으로 인정되면 보상된다. 농협손보는 작년에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어도 약 10~20건 정도가 폭염피해로 보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 폭염으로 인한 폐사량이 자기부담금인 1백 만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보사는 농협손해보험이며, 신청 장소는 지역

농협 지점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축산업등록증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한 마리당 1,500원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입 시 보상금액을 상향하여 2,500~3,000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좋을 것이다.

〈문의전화 : 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팀 02-3786-7814〉

농협목우촌, 토종닭 순살 불고기 출시



지난 5월 1일 농협목우촌에서 '토종닭 순살 불고기'가 출시되었다.

현재 '토종닭 순살 불고기'는 롯데슈퍼 매장이거나 수도권 내 하나로클럽 및 하나로마트, 지방 일부 하나로클럽 및 하나로마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500g 중량으로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나들이용으로 간편하게 들고 나가 조리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다. 특히 와인숙성 닭갈비소스를 배합하여 대중적인 입맛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

고 있다.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웰빙이나 건강이다. 또한 바쁜 현대인들의 요구사항은 간편함이다"라며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분석했다. 더불어 "이런 요구사항에 발맞춰 '토종닭 순살 불고기'는 믿을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강조했다. '토종닭 순살 불고기'의 구성성분

은 국내산 닭고기 70%와 와인숙성닭갈비소스 30%로 되어 있다. 와인숙성닭갈비소스도 국내산 마늘을 활용한 달콤치킨 양념이나 국내산 당근을 활용한 달콤치킨양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협목우촌은 출시 후, (사)한국토종닭협회와의 소비홍보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제품홍보 활동을 하였다. 시식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토종닭의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고 무엇보다 영양 많고 우수한 토종닭을 손쉽게 먹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월드컵 특수는 복 경기로 연결시켜야 한다



계열사 및 대형마트, 월드컵 러시아전 및 16강 진출여부 지켜본 후 공격적 마케팅 전개 예상돼

올해 월드컵 관련된 닭 특수는 러시아와의 1차 예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국내시각으로 오후 8시 30분 두 차례, 오전 3시 30분 한 차례 열렸던 것에 비해, 올해 브라질 월드컵은 시간대가 평일 이른 새벽시간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번 월드컵 경기

에서 한국시각으로 6월 18일(수) 오전 7시 러시아, 6월 23일(월) 오전 4시 알제리, 6월 27일(금) 오전 5시 벨기에전을 치러지게 되어 전 국민이 새벽잠을 설치거나 아침에 출근하며 스마트폰으로 월드컵을 시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업계에서는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인 러시아와의 대전이 승리로 장식되면 대한민국의 16강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 여파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나 밤을 잊은 축구팬들의 TV 시청으로 이어져 치킨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이는 자연스레 닭고기의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올따라서 업계에서는 우선 6월 18일 러시아전을 살펴보고 닭고기 제품관련 이벤트나 할인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열사, 한국팀의 승리 여부에 따라 월드컵 특수 기대

우선 계열사들은 대체로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본 후 월드컵 특수를 통해 홍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림, 한강

씨엠, 마니커, 참프레 등은 아직 뚜렷한 월드컵 홍보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한 계열사 관계자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이 딱히 닭고기 매출과 연관이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본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지배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러시아전에서 한국팀이 승리할 경우, 닭고기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전 승리 후에는 특수일 가능성이 30% 정도라고 전망했다. 물론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축구경기 재시청 등으로 월드컵 특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전했다.

특히 7월 18일 초복을 시작으로 복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굳이 월드컵에 맞춰 홍보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생닭과 가공육의 차이다. 생닭의 경우 복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에 월드컵을 보며 생닭을 조리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생닭에 대한 홍보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공육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목우촌 또래오래의 경우 닭고기 제품에 대한 월드컵 홍보행사를 진행

하기로 했다.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케이드 게임 '영웅의군단' 쿠폰을 등록하면 치킨교환권(선착순 150명)과 브라주카 축구공(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외에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기간 내에 또래오래치킨 구매고객에게 국내산 닭다리 2개를 증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아직까지 뚜렷한 월드컵 홍보 전략 수립하지 못해

닭고기 소매의 주류를 이루는 대형마트들도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월드컵 관련 닭제품 홍보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특히 생닭의 경우 월드컵보다는 복시즌에 맞춰 홍보전략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롯데마트 치킨제품의 경우 월드컵을 초점에 두고 프라이드치킨이나 육봉, 치킨 신제품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에 따라 월드컵 닭제품 특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복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두 시즌을 겨냥한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육계질병가이드 /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투약법

이제 1~2주 후면 '더위가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한낮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봄날씨가 짧아졌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일교차가 심했던 봄, 성공적인 육계사육이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최근 육계농장 한군데에서 상담을 주셨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경남지역에서 육계 50,000수 규모를 사육하시는 농장주께서 백신접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언제, 어떤 영양제를 투약하는 것이 좋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육계사육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줘야한다는 수의사의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스트레스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스트레스(stress)라는 단어의 어원은 '팽팽하다', '좁은'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strictus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주는 답답한

느낌, 근육의 긴장등을 잘 표현한 말인데요. 최근의 의학적 견해에서 보면 생체에 가해지는 외부의 자극과 그때 느끼는 생리적,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여 스트레스로 정의합니다. 닭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요인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람의 손을 타는 모든 경우 (입추,출하, 이동 시의 이동스트레스)
- ② 사양(온도, 밀사, 환기, 점등 프로그램의 변경)
- ③ 질병(백신 접종시 포함)
- ④ 장내 미생물 변화(사료 교체등)

닭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농장주가 닭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특징적인 닭의 행동이 있지만, 백신접종 스트레스는 계군의 활력의 저하, 웅크리고 앉음, 사료섭취량의 감소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백신접종을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하는데요. 스트레스 완화제로 주로 선택되는 것이 비타민 제제와 대사촉진제입니다.

스트레스 상황 하에선 비타민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에, 비타민 B그룹은 중간대사과정에서 필요하며, 비타민 A,D3,E는 닭의 면역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비타민의 투약은 계군의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을 하나하나씩 개별 투약하기는 어려우므로 종합비타민제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인 투약을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시기 전 24시간 연속투약,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내내 투약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투약량의 2~3배 정도 고용도로 투약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식욕이 떨어지므로 사료섭취량이 줄고 증체에 영향을 받는데요. 대사촉진제를 사용하여 계군의 활력을 향상시켜 사료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농장의 사육시설, 사양관리방식,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제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농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powerseeker@hanmail.net로 문의해주세요.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2014년 5월)

(단위 :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 소
박은식		121,380 (250,890)	
최 훈	민영농장	102,000 (102,000)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배광수	수월농장	89,940 (174,090)	경남 거제시
김대영	대영농장	180,000 (377,165)	전북 순창군 쌍치면
김종범	협촌농장	80,000 (160,000)	경북 상주시 사벌면
백성순	성경농장	127,380 (263,980)	전북 고창군 해리면
지귀영	부처물농장	150,000 (150,000)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상길	법곳농장	90,000 (180,000)	경기 고양시 일산구

(단위 :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 소
김이순	만경농장	211,110 (425,610)	전북 김제시 만경읍
안창우	정원농장	118,520 (118,520)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병권	한촌농장	312,620 (312,620)	전북 남원시 주천면
안중규		59,550 (121,500)	
최영규	메바위농장	126,000 (126,000)	경기 화성시
문한순	진석농장	100,000 (100,000)	경기 화성시 향남읍

※ 2014년 5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1,868,500원이며,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닭고기자조금 소식지 편집회의 진행



이흥재 위원장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식지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닭고기자조금 소식지 편집회의 진행

지난 6월 9일 편집위원들은 닭고기자조금 소식지 73호와 관련하여 편집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닭고기

자조금 소식지를 통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사)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현안문제 논의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흥재)는 지난 6월 3일 대전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육비 인하가 계속되고 상대평가가 확산되는 상황에 농가와 계열사 간의 공평하고 발전가능한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 계열사별 평가방법을 분석해 개선방

법을 찾고 국내실정에 맞는 평가방식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생산자 단체 정의를 분명히 하여 농가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정부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여 생산자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한국계육협회



도축검사 수수료 조례 제정 협조 요청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도축장 공영검사제 실시와 관련 각 지자체를 방문, 도축검사 수수료를 당초 예정된 수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 정병학 회장, (사)한국토종닭협

회 문정진 상임 부회장은 지난 5월 20일에는 경기도청을, 23일에는 충북 축산물위생연구소를 각각 방문, 닭 도축검사 수수료 조례 제정과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 수준에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4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제3차 이사회 모습

본회는 이날 의안 심의에 앞서 닭고기 위생업무 전반에 걸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과의 간담회 결과보고와 도축검사 수수료 조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 관련 동향, 닭고기 수급동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산들에프시, (주)계진푸드, (주)씨에스코리아 등 3개 회사에 대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했다.

닭고기 자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자조금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닭고기 자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자조금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본회 정병학 회장을 비롯 양계협회 오세

을 회장, 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 농협중앙회 박인희 단장, 자조금관리위원회 이흥재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자조금 납부 체계 및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 사업의 재위탁 문제,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삼계위원회 개최

최근 삼계 수급동향 등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5월 28일 대전 유성 소재 이화원에서 제1차 삼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삼계 수급동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6주간 삼계 입식 및 냉동비축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알림

각 회원사에 오는 6월 18일까지 의견 제출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상향 조정, 신고포상금 산정 시 가축 시가 산정방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말) 추가 등을 골자로 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본회는 각 회원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공문 발송했으며, 본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6월 18일까지 본 회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은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2014 KOREA 연대별 최강전 대전 마라톤 행사 참가



토종닭협회는 마라톤 행사에서 토종닭을 증정하며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참가하여 함께 뛰며 토종닭의 새로운 이름 ‘한닭’을 알리며 우리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1,300여 명의 마라톤러들이 참가하였으며, 본 협회는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토종닭 떡국을 선

보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토종닭을 우승한 여러 팀에게 선물로 전달하였다.

본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토종닭 홍보를 해나갈 것이며 토종닭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토종닭 홍보관 마련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성수기를 맞아 토종닭홍보행사를 개최하였다.

전국마라톤 협회가 주관하는 전마협 창단 13주년 기념 2014 KOREA 연대별 최강전 대전 마라톤대회에 참여하였다.

토종닭 ‘한닭’의 이름으로 단체전에도

통계청, 2013년 축종별 생산비 통계자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생산비는 자가노동비, 사료비, 가축비 등의 증가로 육계(2.8%), 송아지(4.2%), 우유(2.9%)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에 반해 한우비육

우(-6.2%), 육우(-1.9%), 비육돈(-1.2%), 계란(-3.6%)은 송아지와 병아리 등 가축비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 축산물 생산비 현황 |

구분	2012(A)		2013(B)		전년대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증감(B-A)	증감률(%)	경영비	생산비
육계 (원/kg)	1,299	1,361	1,339	1,400	40	39	3.0	2.8
계란 (원/10개)	1,155	1,227	1,109	1,183	-46	-44	-4.0	-3.6
송아지 (천원/마리)	2,032	3,254	2,124	3,392	92	138	4.5	4.2
한우비육우 (천원/100kg)	772	961	739	901	-33	-60	-4.3	-6.2
육우 (천원/100kg)	550	677	535	664	-15	-13	-2.7	-1.9
우유 (원/l)	635	784	670	807	35	23	5.6	2.9
비육돈 (천원/100kg)	278	294	269	290	-9	-4	-3.3	-1.2

출처: 통계청

아·태 가금학회, 농가들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구성키로 합의해



아태 가금학회의 구성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회의 모습

아·태 가금학회 조직위원회(위원장 한재용)는 지난 5월 27일 축산회관 5층 (사)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0회 아·태 가금학회’에서 진행될 농가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태 가금학회는 세계 3대 학회 중 하나로, 이번 10회 대회에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 개최된다. 이번 제주 학술대회는 ‘차 세대의 가금학 그리고 가금 산업이

라는 주제로 번식·육종, 사양·사료·영양, 가공·복지, 질병·예방, 생명공학, 친환경 등의 최신 동향 및 산업응용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 세계 50여국에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태 가금학회 조직위원회는 제주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 동안 차분히 대회를 준비해 왔다. 지난 5월 27일 열린 회의에서는 참여하는 가금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농장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사양관리 및 경영관리로 구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실용계 병아리 생산량이 큰폭으로 증가해 5월 병아리 가격 하락

전년 대비 월별 병아리 가격이 크게 요동치며 불안한 모습 보여

최근 병아리 생산량 증가로 인해 병아리가격이 상승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 조사·발표 자료에 의하면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인한 병아리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용계 병아리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월 병아리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2.2% 하락한 마리당 437원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월별 병아리 가격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병아리 가

격은 예전에 비해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AI발생 이후 다소 주춤했던 육계경기가 2011년부터 회복되면서 종계사육수수를 늘린 결과 2012년도 병아리 생산증가를 부추겨 연평균가격이 400원대를 형성한 바 있다. 2013년에는 병아리 가격이 평균 생산비 선을 유지했지만 금년처럼 급락폭이 크지는 않았다. 금년의 경우 1월 AI발생 이후 3월 800원대까지 상승했던 병아리 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종계감축협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복경기를 앞두고 회복세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고기 떡갈비

닭고기 한 마리 전체를 사용하여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은 담백한 떡갈비요리이다. 밑에 제시한 재료를 바탕으로 대추꿀 소스를 만들어서 함께 곁들이면 색다른 닭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재 료

떡 갈 비 닭 1마리(600g), 가래떡 1줄, 밀가루 1T

떡 갈 비 양념 1차: 배즙 1T, 양파즙 1T, 매실액 1/2T, 후추

2차: 간장 2T, 꿀 1T, 청주 1T, 다진 마늘 1T, 다진 파 1T, 참기름 2T, 다진생강 1T,

깨 1작은 술

유 장 간장 1T, 참기름 2T

대 추 꿀 소스 대추 10알, 마늘 2알, 간장 3T, 꿀 2T, 맛술 1T, 배즙 1T, 물 1컵

Cooking

1. 닭은 한 마리 전체를 살을 발라 곱게 다진다.
2. 곱게 다진 닭은 1차 양념에 10분 정도 재웠다가 2차 양념을 넣어 치댄 후 성형한다.
3. 가래떡은 끓는 물에 데쳐 말랑한 상태가 되면 유장양념을 하여 준비한다.
4. 양념한 닭고기를 넓게 펴고 가래떡에 밀가루를 묻혀 가운데 넣고 말아 팬에 굴려 가며 지진다.
5. 분량의 대추와 물 1컵을 끓여 대추고를 만든 후 나머지 소스재료를 넣어 졸여 소스를 준비한다.
6. 완성접시에 떡갈비를 먹기 좋게 썰어 담고 대추꿀소스를 뿌려 완성한다.



자료제공 : (사)대한양계협회

퀴즈 낱말맞추기

1			10		9
2		4		6	
		5			
3				7	
			8		

◇ 가로풀이

1. 노래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
2. 다른 지역의 종자와 교배되는 일이 없어 어떤 지역에서만 여러 동 동안 길러져 그 곳의 풍토에 알맞게 적응된 종자
3. 걸어서 길거리를 왕래하는 사람
4. 개인 또는 사법인이 가진 땅
5. 형세가 뒤집힘, 또는 형세를 뒤집음
6.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
7.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8. 일흔 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생일잔치

◇ 세로풀이

1. 축산농가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즉 화재, 풍해, 수해, 설해, 폭염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상품
2.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
3.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봄
4. 운동경기에서 정한 횟수나 정한 시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 때 횟수나 시간을 연장하여 계속하는 경기
5. 아버지의 누이나 여동생

73호 정답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양 계
비법전수생독백신과 불활화백신의
장단점은?

백신은 보관 및 보존온도를 철저히 지키고 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하며 주사 부위와 사용량을 정확히 접종한다. 한번 희석한 백신을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백신은 크게 생독백신과 불활화백신으로 구분된다.

생독백신은 살아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약하게 하여 만든 백신이다. 생독백신의 장점은 빠른 시간에 감

염에 대한 방어능력 형성과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적은 바이러스 양으로 방어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병원체의 침입을 창구에서 막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개발기간이 길며, 동물 배양세포 등에서 다른 병원체가 혼입될 염려가 있으며, 순화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백신반응이 강하고, 너무 순화되었을 때는 면역효과에 영향이 있다.

불활화백신은 미생물의 감염력을 완

전히 상실시켜 만든 백신이다. 불활화백신의 장점은 개발기간이 짧으며, 안정성이 높는데 비하여, 방어능력이 늦게 형성되고, 방어능력의 지속시간이 짧은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불활화백신일 경우 동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접종하기 전에 건강상태를 살펴서 건강여부를 확인한 후 접종을 실시하도록 주의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